

1 | 3 | 번호이동성의 국내 표준화

■ ■ 미래 통신 환경을 주도할 번호이동성

■ ■ 지난 2000년 12월, 정부는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번호이동성이란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 서비스 제공위치,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즉, 소비자에게는 전화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의 품질, 요금 등을 비교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업자 선택의 자유와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사업자 간에는 경쟁촉진을 도모하여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결코 빠른 것이 아니었다. 세계는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 및 OECD 통신 분야 규제개혁심사를 통해 공정경쟁 차원에서 번호이동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 등 통신선진국에서는 이미 번호이동성을 도입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이 통신환경에 따라 구축방식과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성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번호이동성 구현기술 선점의 파급 효과 때문이었다. 누가 먼저 최적화된 번호이동성 구현기술을 개발·시현하

냐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나 장비의 해외수출 시장 역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한발 앞선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 뒤늦은 출발, 그리고 놀라운 성과

■ ■ IT분야에서의 기술 변화는 시간이 곧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수년이나 늦었지만 국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시장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세계화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독과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구도를 다수 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세계 정보통신시장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초고속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우리나라의 저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1년 1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내전화 및 번호이동성 기본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번호이동성전담반을 구성하여 시내전화 번호이동성(LNP) 규격표준화와 이

동전화 번호이동성(MNP) 규격표준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LNP)의 경우 2001년 초부터 규격화를 시작하여 2001년 12월 TTA표준으로 상정되었으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NP)의 경우에도 2002년 1월부터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관련 기술의 개발, 표준화 작업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었다. 여기에, 2004년 1월에는 세계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시차적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그 결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후 불과 2년 만인 2006년 3월,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번호이동성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3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둔화하던 이동통신 가입자의 연평균 성장률을 끌어올렸으며, 가입자 고착현상도 크게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보다 5년 또는 10년 앞서 번호이동성을 시행하고 있는 통신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사례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 성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곧 통신 선진국들과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정립에서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핵심 성공요인, 그리고 미래

■ ■ 국내 번호이동성 시행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국내 실정에 맞는 번호이동의 표준 규격을 신속하게 개발했다는 점과, 이동통신사 및 정보통신부, TTA 등 관련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공조를 통한 합리적인 시행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2G-3G 이동전화 간 번호이동성 로그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번호이동성 시스템의 오류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자문을 통해 번호이동성 상용화 지원 및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고시 개정을 거쳐 상용화할 예정으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인다.

